

복수신용카드 소지자들의 신용카드 사용행태와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edit Card Uses and Debt Burden of Multiple Credit Card Holders

건국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강 사 이 윤 금

박사과정 김 주 연

박사과정 조 향 속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

Lecturer : Yoon Geum Lee

Doctoral Course : Joo Youn Kim

Doctoral Course : Hyang Suk Cho

◀ 목 차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credit card uses and debt burden of the multiple credit card holders. Data were obtained from 428 housewives living in Seoul. OLS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examining factors affecting credit card uses and debt burden for the multiple credit card holders.

The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the three types of credit cards-bank card, retail card, and professional card, the multiple credit card holders tended to have more bank cards than retail and professional cards. Second, holding of the professional card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th the frequency and the amount of credit card use per month. Third, the household income, age, employment status, and motive were important factors in predicting their attitudes toward credit card. Forth, the level of education, employment status, holding of the professional card, motive, amount of credit card use, and attitude toward credit card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perceived debt burden.

I. 서 론

우리 나라에서 소비자신용은 1980년대 중반이후 급속한 소득증가에 따른 가계부문의 채무상환능력

증대, 소비자금융시장의 확충, 금융차입수단의 다양화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96년말 우리 나라 소비자신용 잔액은 85조 4천억 원이며, 1990~1996년 사이에 소비자신용은 연

평균 25.6%로 늘어나 가치분소득 증가율인 14.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부채부담을 나타내는 가치분소득에 대한 소비자신용 잔액비율도 1990년의 0.18에서 1996년에는 0.34로 크게 높아졌고 (한국신용카드업협회, 1997, 6), 소비자신용으로 인한 가계의 부채는 1995년 142조원에서, 1996년에는 174조원, 1997년에는 211조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8, 6).

신용카드는 소비자 신용제도에 속하며,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소비자신용은 가계의 재정부담을 감소시켜 금전관리에 융통성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시켜서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신용카드의 이용은 부채를 지는 것과 같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 이후 급속히 신용카드가 보급되면서 신용카드로 인한 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채액은 1991년 13조 3,671억원, 1994년 39조 3,070억원, 1996년 61조 3,179억원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이러한 신용카드로 인한 부채의 급증은 신용카드 과다소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97년 4월말 현재 4개이상 신용카드를 소지한 카드과다 소지자는 265만명으로 이는 1,500만명으로 추정되는 신용카드 소지자의 17.7%에 이르는 수준이다(한국신용카드업협회, 1997, 6).

제한된 재정자원에서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최대한 하는 합리적인 자원사용은 재무관리의 핵심을 이루며, 재무관리자로서의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지출이나 구매를 하는 경우, 부채로 인한 가정파산까지 이르게 되어 소비자 자신은 물론 전체 국민경제에도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신용카드의 관리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999년부터 금융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신용카드 종류가 더 다양화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2개 이상의 카드를 소지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가계재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신용카드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신용카드의 본격적인 사용이 1980년대에 활성화되면서 부터 시작

되었는데, 초기의 신용카드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경영학 분야에서 카드 발급회사의 이익증대와 신용카드 회원확보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1980년 후반기에서부터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연구가 가정학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의 급증과 더불어 다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되는 추세에서 복수신용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한 신용카드 사용행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신용카드를 복수로 소지하고 있는 가계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사용행태를 조사·분석하여 건전한 가계재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카드를 소지한 가계의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일반적 실태를 살펴보고, 신용카드 사용행동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나아가 복수카드를 소지한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행태와 카드사용으로 인한 부채부담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용카드의 종류

신용카드는 발행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점과는 '정당한 회원에게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으로 판매한 물품대금의 회수는 카드 발행자가 책임진다'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카드 발행자가 가맹점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고 일정 기일 후 결제일에 회원으로부터 이자없이 그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신용카드의 기능은 통화수단으로서의 지불수단기능, 신분증명기능, 외환기능, 인출확인 및 정보확인기능, 소비자신용기능, 우대기능, 예약·예매기능, 보험기능, 통신판매기능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는 1969년 신세계 백화점에서 발행이 시작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신용카드가 본격화한 것은 최초의 은행계 신용카드인 국민카드가 1980년

에 국민은행에서 발급되면서 시중은행들도 은행신용카드(Bank Credit Card)를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국제카드로는 외환은행이 VISA카드(외환카드)를 발급하였고, 1984년 국제적 신용카드인 다이너스클럽,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이 출현했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카드는 크게 3종류인데 현금서비스와 상품매출이 주기능인 은행계카드(국민카드, 비씨카드, 비자카드, 외환카드, 장은카드), 가맹점 매출과 해외여행알선 등 고객서비스에 주력하는 전문사카드(삼성카드, 엘지신용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다이너스클럽카드, 위너스카드), 그리고 백화점 판촉을 위한 백화점계카드(신세계, 롯데, 현대 등)가 있다.

1994년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사별 보급현황을 보면, 카드발급수에 있어서는 은행계인 비씨카드와 국민카드가 각각 전체의 41.3%, 20.3%를 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 외환카드(15.4%), 엘지신용카드(11.2%), 삼성카드(10.4%), 장은카드(1.4%) 순으로 나타났다(박만석과 김동준, 1995). 이용 실적에 있어서는 13개 회원은행으로 구성된 비씨카드가 전체의 41.8%를 점유하고 있고, 국민카드(22.0%), 외환카드 (12.8%), 삼성카드(12.6%), 엘지신용카드(10.0%), 장은카드(0.8%)순으로 나타났다(박만석과 김동준, 1995).

2. 신용카드 사용행태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

신용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행태를 조사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카드종류로는 전문사카드나 백화점카드보다 은행계카드를 많이 소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희, 1992; 조의준, 1994; 박찬실, 1995).

이은희(1992)의 연구에서 카드 사용빈도는 월평균 1~2회미만이 49.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박대순(1991)의 연구에서 6개월에 1회 사용, 김정훈(1991)의 연구에서 2~3개월에 1회 사용이 가장 많았던 결과 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조의준(1994)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월평균 카드 사용빈도는 2회이하가 61.3%로 가장 많았고, 박선태(1995)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월평균카드 사용빈도는

1~2회(56.6%), 3~5회(35.5%), 6~9회(4.3%)순이었고, 박찬실(1995)의 연구에서의 월평균 카드 사용빈도는 1~2회가 78.6%, 3~6회가 19.3%, 7회이상 2.1%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두고 볼 때, 월평균 카드 사용빈도는 1~2회가 가장 많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은희(1992)의 연구에서 월평균 1~5만원미만(26.9%)이 가장 많았고, 박찬실(1995)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10만원이하(56.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볼 때,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1~10만원이 가장 많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89)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 보유자는 전반적으로 신용카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wh & Waters (1974)의 연구에 의하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었고, 젊은층이 노년층에 비해 신용카드에 대해 우호적이었다(조의준, 1994).

3.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의 고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태도에 따라 카드사용액 및 카드소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조의준, 1994),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신용카드 보유여부와 신용카드 사용경험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의, 1997). 그러나 박찬실(1995)은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와는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와 생활양식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빈도와 사용액이 다르다고 하였다.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보면, 연령이 적을수록 신용카드 사용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나(이영호와 지영숙, 1987), 연령이 높을수록 사용액이 많았고(최재복, 1995; 박선태, 1995; 이상영, 1995), 연령과 신용카드 사용빈도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연구도 있었다(조의준, 1994; 박찬실, 1995). 한편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은 연령이 높

을수록 높게 나타났고(박근주, 1990), 신용카드 관리 행동에 있어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신용카드 영수증 보관행동이 높게 나타났다(이영호와 지영숙, 1987).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있어서 대체로 유의미하게 높았고(조의준, 1994; 박선태, 1995; 박찬실, 1995),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높았으며(박찬실, 1995),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용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신용카드 관리를 잘하였다(박근주, 1990; 이은희, 1992).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았으나(최재복, 1995), 교육수준과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찬실, 1995). 또한, 학력이 낮은 주부들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높았으나(최동숙, 1985), 교육수준과 신용카드 사용빈도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조의준, 1994; 박선태, 1995).

교육수준이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강조되었다(Choi & DeVaney, 1995; Danes & Hira, 1990). 그러나 서울지역 주부의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사용동기, 관리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임정빈과 이영호, 1992)의 결과에서 보면, 주부들의 신용카드관리에 필요한 지식수준이 매우 낮으며, 특히 신용카드의 선택이나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카드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연체료율이나 도난 분실시의 보상범위에 관한 지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나 주부들을 대상으로한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행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분석을 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를 복수신용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복수신용카드를 소지한 가계를 중심으로한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4. 가계의 부채부담에 관한 선행연구의 고찰

가계의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소

비자신용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가계의 부채보유상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조사가구의 72.2%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주가 백인인 경우,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경우 부채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Kennickell & Schack-Marquez, 1992). 또한, 부채문제가 심각한 가계를 대상으로 부채부담을 조사한 Hira(1990)의 연구에서는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가계의 부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ullivan & Worden (1986)의 연구결과에서는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가 가계의 부채이용 확률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신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 부채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영애와 양세정(1995)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가계중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38.2%였으며, 부채보유가계의 평균 부채부담율은 33.9%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부채보유 확률은 가계 소득, 금융자산, 주택소유여부, 가구주 연령, 거주지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부담은 가계소득, 금융자산, 부채원수, 가구주 직업 및 거주지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채부담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가계의 부채보유나 부채부담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신용카드 사용행태와 부채부담간의 연관성을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행태로 야기될 수 있는 부채부담, 즉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가계의 부채부담을 분석해봄으로써, 소비자신용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복수신용카드 소지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빈도, 사용액) 및 신용카

드 사용동기의 일반적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복수신용카드 소지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 및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복수신용카드 소지자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채부담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변수 및 연구모형

〈연구문제 1〉의 복수신용카드 소지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일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계카드(국민카드, 비씨카드, 비자카드, 마스타카드), 백화점카드(신세계, 롯데, 현대 등), 전문사카드(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 클럽, 코리안 익스프레스, 삼성카드, 엘지신용카드) 등 3가지 유형으로 카드종류를 분류하였다. 신용카드 사용동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주된 이유를 질문하는 문항을 통해 편리성동기, 카드서비스동기, 할부구매동기, 기타동기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의 신용카드 사용행동 및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행동은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빈도와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측정하였다.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신용카드에 대하여 주부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문항별 신뢰도인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그 신뢰도는 .78로 높게 나와 각 문항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복수신용카드 소지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 및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사용행태 = f(사회경제적 특성, 카드유형, 카드사용동기)

본 연구에서 설명변수로는 가계의 사회경제적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총자산, 자녀수, 소득수준,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과 신용카드유형(전문사카드) 및 카드사용동기(할부구매, 편리성, 카드서비스, 기타동기)들을 가변수로서 포함하고있다.

〈연구문제 3〉의 부채부담인지도는 부채부담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방법은 '카드 사용으로 인한 빚부담이 적정이다' 라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채부담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부채부담인지도 = f(사회경제적 특성, 카드유형, 카드사용동기, 카드사용빈도, 카드사용액,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3.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으로서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편의 표집하여, 예비조사는 1997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서울지역 기혼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7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1230부 중 1115부가 회수되었으며, 신용카드를 적어도 두 개이상 소지하고 있는 428가계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약 43세 였고, 주부의 교육수준은 평균 14년으로 고졸 및 전문대이상이었다고, 가족수는 평균 4.2명 정도였다. 이들의 총자산은 평균 1억1천 5백만원 정도였고, 금융자산은 2천 907만원 정도였으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액은 81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인의 직업으로 취업주부는 75.7%, 전업주부는 23.4%로써 조사대상자들에는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훨씬 많았고, 자녀수는 2명이 59.6%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151~250만원이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N=428)

연속 변수	평균	
주부연령	42세	
주부학력	14년	
가족수	4.2명	
총자산	11508.3만원	
금융자산	2907.4만원	
총부채액	81.3만원	
범주형 변수	집 단	빈 도(%)
주부취업여부	취업주부	324(75.7)
	전업주부	100(23.4)
자녀수	1명이하	41(9.6)
	2명	255(59.6)
	3명이상	132(30.8)
소득계층	150만원이하	71(16.6)
	151-250만원	151(35.3)
	251-350만원	110(25.7)
	351만원	96(22.5)

43.2%로 가장 많아서 조사대상자들이 주로 중소득 계층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SAS-PC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평균, 백분율 등을 산출하였고,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연구모델들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사용행태 및 부채부담인지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 보기 위하여 OLS(Ordinary Least Squares)방법에 의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복수신용카드 소지자의 카드 사용행동의 일반적 실태

〈표 2〉를 통해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평균 2.7개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월평균 카드사용빈도는 3회인데 이러한 수치는 선행연구의 결과인 1~2회 보다 높은 수치이다

〈표 2〉 복수신용카드 소지자의 신용카드 사용실태
(N=428)

변 수	평균/빈도(%)
총카드수	2.7개
은행계 카드	408(95.3)
백화점 카드	254(59.3)
전문사 카드	49(11.4)
신용카드 사용빈도	3.0회
신용카드 사용액수	32.7만원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3.1/5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채부담 인지도	2.5/5

* 복수응답임

(박대순, 1991; 이은희, 1992; 조의준, 1994; 박선대, 1995; 박찬실, 1995). 한편, 월평균 카드사용액은 32만7천원으로 사용액수면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빈도나 사용액이 높은 수치를 보임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복수카드소지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5점 척도 중에서 3.1인데 이는 신용카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부채부담인지도는 5점 중 2.5로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빚부담에 대해 '그저 그렇다'로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카드종류에 따른 소지수는 은행계(408), 백화점계(254), 전문사(49)의 순으로 보유하고 있고, 특히 전체 응답자의 95.3%가 은행계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사카드는 11.4%로 비교적 낮게 보유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동기를 〈표 3〉에서 살펴보면, 상품을 구입후 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한다는 할부구매동기(37.6%)가 가장 높고, 불필요하게 많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한다는 편리성동기(25.9%), 그리고 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반품 및 환불용이/소액의 용자 등의 카드서비스동기(24.8%)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행계카드와 백화점 카드는 할부구매동기로 가장 많이 쓰이나, 전문사카드는 편리성동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신용카드종류에 따른 사용동기

신용카드 종류 신용카드 사용동기	은행계 카드	백화점 카드	전문사 카드	계
편리성 동기	107	62	24	25.9%
서비스 동기	105	57	6	24.8%
할부구매 동기	155	117	7	37.6%
기타 동기	22	16	2	5.8%
소계	389	252	39	94.1%

* 복수응답임

2.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신용카드 사용행동은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빈도와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측정하였는데, 이에 관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신용카드 사용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고소득층, 전문사카드 보유였고,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고졸학력, 전문대졸이상, 취업주부, 전문사카드 보유, 편리성동기 등이었다.

신용카드 사용빈도에 있어서는 월평균소득이 251

〈표 4〉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428)

독립변수	신용카드 사용빈도	신용카드 사용액
	Est. Coefficients(SE)	Est. Coefficients(SE)
총자산	0.0001(0.0001)	0.0004(0.0001)
자녀수	0.4879(0.4075)	-2.7449(4.4032)
소득계층: (저소득)		
중소득	-0.1935(0.7772)	0.4159(8.3959)
고소득	-1.6873(0.8368)**	-12.7855(9.0409)
최고소득	-1.4115(0.9112)	9.9289(9.8441)
주부연령: (51세이상)		
40세이하	-0.3857(1.1242)	-6.5380(12.1460)
41~45세	-0.4427(1.0926)	-4.2260(11.8039)
46~50세	-0.5609(1.1467)	-15.0534(12.3888)
주부학력: (중졸)		
고졸	-0.7288(1.0299)	-33.2299(11.1275)***
전문대졸이상	1.0401(1.0963)	-33.4735(11.8441)***
주부의 직업: (전업주부)		
취업주부	-0.5306(0.6075)	-23.0822(6.5634)***
신용카드종류: (전문사카드비보유)		
전문사카드보유	1.9870(0.8293)**	23.6483(8.9594)***
신용카드 사용동기: (할부구매동기)		
편리성동기	-0.1205(0.6267)	21.0080(6.7708)***
서비스동기	-0.3663(0.6369)	-5.0671(6.8808)
기타동기	-1.3499(1.1204)	-10.7403(12.1049)
상수항	3.3362(1.8302)	88.0201
R ²	.08	.15
F	2.303***	5.029***

괄호안은 비교집단

*p<0.10, **p<0.05, ***p<0.01

만원~350만원인 고소득층가계는 월평균소득이 150만원미만인 저소득층가계보다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낮았다. 또한, 전문사카드를 보유한 가계는 전문사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에 비해 사용빈도가 대략 2회정도 많았다. <표 3>의 카드사용동기에서 전문사카드는 주로 편리성동기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귀분석결과 다른 모든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전문사카드 보유가 카드사용 빈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소지하고 있는 카드유형이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있어서 주부 학력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부의 취업여부도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취업주부의 경우 전업주부에 비해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23만원정도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빈도의 결과와 유사하게 전문사카드를 보유한 가계는 전문사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에 비해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른 종류의 신용카드에 비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삼성카드, 엘지카드 등의 카드전문회사에서 발행한 카드를 보유함이 국민카드, 비씨카드, VISA카드와 같은 은행계카드, 그리고 신세계, 롯데, 현대 등의 백화점에서 발급하는 백화점카드를 보유함 보다 월평균 카드사용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편리성동기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가계는 할부구매동기로 카드를 사용하는 가계보다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21만원 정도 더 많았다. 따라서 다른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양한 신용카드 사용동기 중 편리성동기만이 카드사용액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신용카드에 대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의 결과를 <표 5>에서 보면, 최고소득층, 주부연령 40세 이하, 취업주부, 편리성동기 등이 유의한 변수인 것

<표 5>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N=428)

독립변수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Estimated Coefficients(SE)
총자산	0.0000(0.0000)
자녀수	0.2244(0.2755)
소득계층: (저소득)	
중소득	-0.6188(0.5253)
고소득	0.6523(0.5656)
최고소득	-1.4600(0.6159)**
주부연령: (51세이상)	
40세이하	1.2665(0.7599)*
41~45세	0.3321(0.7385)
46~50세	1.2724(0.7751)
주부학력: (중졸)	
고졸	-0.4965(0.6961)
전문대졸이상	-0.5051(0.7410)
주부의 직업: (전업주부)	
취업주부	-1.1212(0.4106)***
신용카드종류: (전문사카드비보유)	
전문사카드보유	-0.7777(0.5605)
신용카드 사용동기: (할부구매동기)	
편리성동기	-0.9505(0.4236)**
서비스동기	-0.3385(0.4305)
기타동기	0.5521(0.7573)
상수항	9.9867(1.2370)
R ²	.09
F	2.827***

괄호안은 비교집단

* p<0.10, ** p<0.05, *** p<0.01

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351만원 이상인 최고 소득층가계는 150만원미만인 저소득층가계에 비해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부 연령이 40세이하인 경우는 연령이 51세 이상인 경우보다 신용카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신용카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신용카드를 편리성동기로 사용하는 경우 할부구매동기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신용카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표 4>의 신용카드 사용액 회귀모델에서 편리성동기로 카드를 사용하는 가계의 경우 여타동기로

카드를 사용하는 가게 보다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볼 때,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로 인한 부채증가가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4. 부채부담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빚부담에 대한 걱정정도를 측정하는 부채부담인지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채부담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는 고졸학력, 취업주부, 전문사카드보유, 기타동기, 신용카드사용액,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등 6개의 변수이다. 다른 변수를 통제 한 상태에서, 주부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는 중졸인 경우보다 카드사용으로 인한 부채부담에 대한 주관적인지가 높았으나,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카드사용으로 인한 부채부담인지도가 낮았다. 그러나 전문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문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않은 경우 보다 부채부담인지도가 높았고, 기타동기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할부구매동기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보다 부채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예상한대로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증가할수록, 부채부담인지도가 증가하였고,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일수록 카드사용으로 인한 부채부담인지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게의 카드사용액이 증가할 때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카드사용으로 인한 부채부담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것은 카드사용액과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가게의 주관적 경제적복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카드사용으로 인한 빚부담 인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는 않았다.

VI.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복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일반적 실태를 알아

<표 6> 부채부담인지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N=428)

독립변수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Estimated Coefficients(SE)
총자산	6.1592(3.1508)
자녀수	1.6968(1.1657)
소득계층:(저소득)	
중소득	3.0394(2.2173)
고소득	-1.4054(2.4000)
최고소득	2.2075(2.6313)
주부연령: (51세이상)	
40세이하	2.6729(3.2139)
41~45세	3.1473(3.1132)
46~50세	2.5109(3.2827)
주부학력:(중졸)	
고졸	5.5451(2.9665)*
전문대졸이상	2.7901(3.1685)
주부의 직업:(전업주부)	
취업주부	-2.8904(1.7703)*
신용카드종류:	
(전문사카드비보유)	
전문사카드보유	4.2370(2.3939)*
신용카드 사용동기:	
(할부구매동기)	
편리성동기	-7.7741(1.8220)
서비스동기	2.3602(1.8167)
기타동기	5.5546(3.1994)*
신용카드 사용빈도	7.5163(1.4967)
신용카드 사용액	2.9583(1.3833)**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9.2887(2.0826)***
상수항	7.4415(5.7185)
R ²	.11
F	5.810***

괄호안은 비교집단

* p<0.10, ** p<0.05, *** p<0.01

보고, 신용카드 사용행태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며, 이들 가게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채부담에 대한 주관적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는 평균 2.7개의 카드를 소지하

고 있으며 은행계카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빈도는 3회였고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33만원이었으며, 여러 카드사용동기 중에서 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한다는 할부구매동기가 가장 많았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월평균소득이 251만원~350만원인 고소득층가계는 월평균소득이 150만원미만인 저소득층가계보다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적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소득계층은 유의하지 않았고,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사용액이 감소했고, 취업주부인 경우 전업주부보다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적었다.

셋째, 전문사카드를 보유한 경우는 전문사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에 비해 월평균 사용빈도 및 월평균 사용액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사카드를 보유한 경우 여타카드를 보유한 경우보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채부담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신용카드 사용동기에 있어서는 편리성동기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가계의 경우 할부구매동기로 사용하는 가계보다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많았으나, 이들 가계의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할부구매동기로 카드를 사용하는 가계보다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최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신용카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신용카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복수신용카드 소지자의 신용카드 사용행태와 이들의 부채부담인지도에 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편리성동기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할부구매동기로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많았는데, 이는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현금이 없어도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소비자들에게 충동구매를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플라스틱 money로서 화폐의 기능을 대신 하는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편리성으로 인한 충동구매는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편리성이라는 신용카드의 순기능적 요소이면에 있는 신용카드가 갖는 경제적 역기능을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여타카드를 보유한 가계에 비해 전문사카드를 보유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빈도와 사용액 둘다 증가하였고, 부채부담인지도 또한 높았다. 앞으로 금융시장 개방화에 따라 신용카드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전문사카드 보유자의 비율이 늘어날 추세에서 전문사카드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상한대로 카드사용액과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가계의 부채부담인지도에 둘다 유의한 정적영향력을 보였다. 즉,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채부담인지도가 높았고, 신용카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부채부담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신용카드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보급할 뿐만 아니라 재무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전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자원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오늘날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다양해지는 신용카드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본 연구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난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토대로 이러한 특성의 가계에 초점을 두고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선택이나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카드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연체료율이나 도난 분실시의 보상범위에 관한 지식을 저학력층 주부나 전업주부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경우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했으나, 보다 폭넓은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즉, 조사대상 및 지역의 확대로 복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

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에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으나 카드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행태 및 부채부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복수신용카드 소지자의 신용카드 사용행태와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복수신용카드 소지자의 재무관리행동은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복수카드 소지자의 재무관리행동과 부채부담을 이해하는 연구가 후속연구로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신용카드 사용행태 및 부채부담인지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4개의 회귀모델이 분석되었으나, 이러한 회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여러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경로분석이 후속연구에서 요구된다. 즉, 복수카드 소지자의 부채부담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변수들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효과를 측정하는 경로분석은 본 연구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김정훈(1989). 현재와 미래의 신용카드 사용의 의사결정에 따른 가정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7(1), 49-57.
- 2) 박근주(1990).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박대순(1991).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활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박만석 김동준(1995). 신용카드 이용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구매행동의 연구. 광고연구, 231-260.
- 5) 박명희(1994). 소비자 의사 결정론. 서울: 학원사.
- 6) 박선태(1995). 신용카드 소지자의 카드이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계명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박찬실(1995). 은행계 신용카드를 이용한 직장인들의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서경의(1997).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성영애 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 10) 이상영(1995). 주부들의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과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이영호 지영숙(1987). 도시민의 신용카드 사용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5(1), 51-68.
- 12) 이은희(1992). 신용카드 관리행동의 체계론적 영향요인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임정빈 이영호(1992). 서울지역 주부의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사용동기, 관리행동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245-261.
- 14) 조의준(1994). 신용카드 이용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조선일보, 1998년 6월 3일.
- 16) 최동숙(1985). 신용카드사용 주부들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77-93.
- 17) 최재복(1995). 은행계 신용카드 고객의 특성과 마케팅 전략.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한국소비자보호원(1989). 신용카드 실태조사보고서.
- 19)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 20) 한국신용카드업협회(1997). 신용카드, 제16호.
- 21) Danes, S. & Hira, T. (1986). Money Management

- Knowledg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7.
- 22) Choi, H. & DeVaney S. (1995). Consumer Interests Annual, 41, 148-154.
- 23) Hira, T. (1990). Changes i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Debt among Scottish Families, 1984-1987,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14, 165-175.
- 24) Kennickell, A. & Schack-Marquez, J.(1992).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Consumer Debt Use, Credit Research Center, Purdue University, Working Paper, No. 52.